

용서과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 성 진[†]
삼육대학교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서 경 현
삼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에서 상처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용서과정에 근거하여 용서과정 척도를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경순의 용서과정 모형을 근거로 총 60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연구에서 내용타당도 점검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요인이 추출되었다. 6개 요인은 증오기, 고투기, 안정기, 재정의기, 용서기, 성숙기로 명명하고 각 요인 당 5문항씩 총 30개의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전체문항과 하위요인들 모두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개발된 용서과정 척도의 타당도 분석은 네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용서과정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요인 구조는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용서과정 척도의 하위요인은 Rye 용서 척도(FS) 및 한국인 용서 척도(KFS)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용서과정 척도의 점수는 용서 수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준거관련타당도 분석 결과, 용서과정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분노, 불안,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용서과정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지닌 도구임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용서, 용서과정, 척도개발, 타당화

[†] 본 논문은 정성진(2011)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용서과정 척도 개발’을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성진, (139-742) 서울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el : 02) 3399-1681, E-mail : sjchung@syu.ac.kr

대인관계가 행복의 근원인 동시에 불행의 원인이라는 역설적인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대인관계에서 받은 상처의 효과적인 치유책이자(권석만, 2006) 대인관계 문제 해결법 및 예방법으로 용서가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긍정심리학이 조명을 받으면서 경험적 연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용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과 용서를 촉진시키는 상담자나 교육자들에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용서척도는 필수적인 도구다(Enright & Fitzgibbons, 2006). 용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시작된 1980년대 이전에는 용서를 직접 측정하는 다문항 척도가 없었지만(Wade, 1989), 현재는 약 40개 정도의 용서 관련 척도들이 국내외에서 개발되었다.

용서척도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Worthington, 2005). 용서에 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부당한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친사회적인 변화’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McCullough, Pargament, & Thoresen, 2000). 용서에 대한 정의는 용서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첫째, 용서를 하는 사람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용서는 다르다. 둘째, 용서 대상에 따라서 대인용서, 자기용서, 상황용서 등이 존재한다. 셋째,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 특성인 특성용서와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현재의 용서수준인 상태용서로 나뉘볼 수도 있다(정성진, 서경현, 2011).¹⁾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용서가 존재하고, 학자들마다 조작적 정의를 달리 하며, 측정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용서 관련 척도들이 많아졌다.

용서의 다양한 측면들이 모두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대인관계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상담자나 교육자에게는 상태용서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오영희, 2008) 상태용서를 측정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 개발되었다. 기존의 상태용서 척도들은 전반적인 용서 수준이나 개발자가 설정한 영역별 용서 수준을 점수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상태용서는 단번에 일어나기 보다는 대체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이뤄지는데(손운산, 2008), 기존의 상태용서 척도들 중에는 용서과정 자체를 측정하여 응답자가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는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기존의 상태용서 척도들에는 구성개념, 실용성, 요인구조 등에서 한계점이 있다. 대표적인 상태용서 척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성용서’와 ‘상태용서’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다음의 인용문을 참조하라.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용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영어권 학자들은 situational forgiveness, offense-specific forgiveness, state forgiveness를 사용하는데, 이를 국내에서는 상황적 용서(오영희, 2008) 혹은 상황특수적 용서(김지영, 권석만, 2009), 침해특수적 용서(이아롱, 구재선, 2009)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 특성인 용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영어권에서는 dispositional forgiveness, forgivingness, trait forgiveness를 사용하는데, 이를 국내에서는 성향적 용서(오영희, 2008), 용서특질(김지영, 권석만, 2009), 기질적 용서(이아롱, 구재선, 2009)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황적 용서의 경우 상황용서 개념과 비슷하여 혼동될 우려가 있고 상황특수적 용서나 침해특수적 용서는 용어가 비교적 길다. 본 연구자들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분노개념을 대비시킨 것처럼 두 용서 개념도 상태용서와 특성용서로 지칭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정성진, 서경현, 2011).

최초로 개발된 상태용서 척도인 Trainer 용서 척도(Trainer, 1981)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하는 것을 용서라고 정의하고 동기에 따라 용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문항의 내용이 부부관계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대인관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기에 따른 유형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용서 수준과 용서과정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Wade(1989)가 개발한 용서 질문지(WFI: Wade Forgiveness Inventory)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용서 수준을 생각, 감정, 행동 영역으로 나눠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83개라는 문항수가 간편히 사용하기에는 비교적 많은 편이고, 종교적 내용을 담은 문항들로 인해 비종교인에게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지 않아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Enright & Fitzgibbons, 2006), 용서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척도인 Enright 용서 질문지(EFI: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는 Subkoviak 등(1995)이 개발한 것으로 현재 국내 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EFI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서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충실하게 개발되었고, 여러 문화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60개라는 문항수가 비교적 많고, 이론적으로 가정한 3요인 구조(인지, 정서, 행동)가 요인분석으로는 지지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박종효, 2006; 오영희, 2008) 용서과정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해행동 대인동기 척도(TRIM-12: 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scale)는 McCullough 등(1998)이 개발한 것으로 문항이 적어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회피동기와 보복동기로 이뤄진 2요인 구조가 요인분석으로 지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 즉 회피동기와 보복동기의 부재만을 용서의 구성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용서에는 접근이나 배려 같은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긍정적인 요소, 즉 친사회적인 동기를 첨가한 TRIM-18이 개발되었지만, 이론상 가정한 친사회적 동기, 회피동기, 보복동기라는 3요인이 요인분석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 동기 수준 점수만으로는 용서과정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Rye 용서 척도(FS: Forgiveness Scale)는 Rye 등(2001)이 개발한 척도로 EFI와 TRIM-12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FS는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부재와 긍정적 반응의 존재를 동시에 측정하기에 용서의 구성개념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문항수가 15문항이라 사용하기에 쉬우나 여전히 용서 수준 점수로는 용서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느 국면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최초의 상태용서 척도로는 오영희(2008)가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KFS: Korean Forgiveness Scale)가 있다. 이 척도는 EFI처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한국인의 특성이 반영된 문항들로 이뤄져 있고 비교적 문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추정된 3요인 모형이 요인분석에서 지지되지 못한 점과 용서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되어 사용되는 상태용서 척도들은 양호한 심리측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용서의 구성개념이 불완전하거나, 문항수가 많아 사용하기에 부담되거나, 이론적으로 산정한 요인구조가 요인분석으로 지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용서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하여 연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내담자나 피교육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총점으로 용서 수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을 단순히 용서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과정의 각 국면마다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들을 연구하기 힘들다. 또한 총점 방식은 단지 용서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알려줄 뿐 응답자가 용서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용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응답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06).

용서과정 척도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적합한 용서과정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Walker와 Gorsuch(2004)가 용서과정 모형 열여섯 개를 소개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모형이 국내외 문헌에 등장한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Enright의 모형과 Worthington의 모형이다.

Enright와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1996)은 용서를 분노 처리 과정으로 보고, 용서와 관련된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서과정을 개방단계, 결심단계, 실행단계, 심화단계로 이뤄진 4단계 20개 이정표로 정리하였다.

Enright 모형은 비교적 상세하기에 용서상담 및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용서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경험적 검증을 통해 비교적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있다(박종효, 2003; Baskin & Enright, 2004). 그러나 이 모형은 전반부에서 이뤄지는 용서의 결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용서 경험도 그와 같은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Enright 모형의 이정표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여러 이정표들이 모형과는 다른 위치에 배치되었고, 특히 용서의 결심은 후반부에 놓였다(Knutson, Enright, & Garbers, 2008). 즉, 실제로 사람들은 용서에 도움이 되는 작업을 다 한 후에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미가 상이한 이정표라는 요소들을 상위 구성개념으로 묶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통한 용서과정 척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Worthington(2006)은 용서에는 공감, 겸손, 헌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감을 중심으로 용서의 피라미드 모형(REACH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상처를 회상하는 단계,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단계, 이타적 선물인 용서를 주는 단계, 공개적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헌신하는 단계, 용서를 지속하는 단계로 이뤄져 있다. Worthington 모형은 간략하면서도 용서를 직접 다루는 단계가 상대적으로 많고,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조언들이 모형에 대한 설명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평소에 좋은 관계였다가 깨어진 경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손운산, 2008).

그러나 용서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개입에 어울리는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상처 받은 직후 겪는 용서과정 경험을 잘 반영하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용서과정 모형은 학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통찰에 근거하여 제시한 것이거나 용서를 의도적으로 촉진시키는 중재를 포함시킨 것이어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중재 없이 이뤄지는 일상생활의 용서과정을 잘 반영하지는 못한다. 어떤 모형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과 화해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현실에 가깝지만 상호작용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모형이 매우 복잡해지거나 화해 없이 이뤄지는 용서에 적용하지 못한다. 종교적인 요소가 포함된 모형들은 비종교인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질적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용서과정을 제시한 모형들(이경순, 2008; Truong, 2001)은 일반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지만, 내담자가 현재 용서과정 중 어느 지점에 있는지 평가하고 어떤 요소를 통해 용서를 촉진시켜야할 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경순(2008)의 모형은 용서를 경험한 45세 이상 성인남녀 10명을 심층 면담한 후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경순(2008)은 증오를 중심현상으로 보고 증오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용서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용서과정의 주요범주는 ‘가해로 입은 상처,’ ‘증오,’ ‘고투,’ ‘부정적 정서 표현,’ ‘사건 재정의,’ ‘자유 느낌,’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이다. 이경순(2008)의 모형은 용서를 의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개입 모형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직후 용서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경험하는 내용들로 이뤄진 모형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만들어졌으면서도 비교적 간략하여 척도의 요인을 구성하기에도 용이한 모형이어서 용서과정 척도를 구성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순서로 용서과정을 제시한 이경순의 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용서과정 척도 개발을 위한 용서과정 모형을 설정하고 각 국면마다 핵심 요소를 한 가지씩 설정하였다.

(1) 증오기: ‘가해로 입은 상처’는 용서과정의 선행사건이기 때문에 용서과정 척도를 위한 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다음 국면인 ‘증오’는 상처 직후 느낀 분노가 심화되면서 상처로 인한 충격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복수가 강렬해지는 때이므로 ‘증오기’라고 명명하고 핵심 특징을 ‘증오’로 설정하였다.

(2) 고투기: ‘고투’ 국면은 상처 준 사람을 보거나 상처 받은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부정적 반응이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시기이다. 또한 증오나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 그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 등이 마음에 반복해서 떠오르는 증오심 같은 부정적인 반응과 부딪혀 괴로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투기’라고 명명하였다. 고투기의 핵심 특징은 ‘극복 노력의 실패’로 설정하였다.

(3) 안정기: ‘부정적 정서 표현’ 국면은 가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억울함과 부정적인 정서를 털어놓고 위로와 안정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기’라고 명명하였다. 마음에 위로를 받으면 감정이 많이 완화되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안정기의 핵심 특징은 ‘표현 후 위로 받음’으로 설정하였다.

(4) **재정의기**: ‘사건 재정의’ 국면은 상처 준 사람이나 사건을 상처 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봄으로 객관적인 견해를 얻어 더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정의기’라고 명명하고 주요 특징은 ‘인지적 재구성’으로 설정하였다.

(5) **용서기**: ‘자유 느낌’ 국면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결심함으로 마음이 활기차고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용서기’라고 명명하였다. 상처 준 사람을 보거나 상처 받은 사건이 떠올라도 부정적인 반응에 휩싸이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용서기의 핵심 특징은 ‘자유로운 느낌’으로 설정하였다.

(6) **성숙기**: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 국면은 용서를 통해 마음이 자유를 느끼게 되면서 삶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매순간을 귀하게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상처 받은 사건을 통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성숙기’라고 명명하고 핵심 특징은 ‘의미부여’로 설정하였다.

위의 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대인관계에서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반복되는 고통을 표현과 생각의 전환을 통해 극복함으로 자유로움을 느끼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용서과정 모형과 개념적 정의에 따라 6가지 하위 구성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심리측정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첫째, 신뢰도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 수렴타당도,

용서수준 상하 집단의 차이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준거관련타당도는 용서과정과 부적응 변인들(분노, 불안, 우울)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성인 750명이었고,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성인 500명이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대인관계 상처 질문지에서 피해사건의 심각성을 묻는 4점 리커트형 문항에 ‘전혀 아니다’나 ‘약간 그렇다’라고 답한 자료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예비 연구에서는 548명(남성 268명, 여성 280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고 평균연령은 37.8세(SD=11.15)였다. 본 연구에서는 355명(남성 167명, 여성 188명)의 자료를 포함시켰으며 평균연령은 37.5세(SD =11.24)였다.

측정도구

대인관계 상처 질문지. 이 질문지는 상처 받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용서과정 문항에 답하기 전에 상처 받은 사건을 회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지시문을 통해 최근 2년 이내에 누군가에게 받은 가장 큰 상처를 떠올려보도록 요구한 뒤 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지는 상처 받은 시점, 상처 준 사람, 상처 받은 내용, 상처 준 사람과의 친밀도, 사건의

심각성, 사건의 의도성, 사건의 반복성에 대한 문항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사건의 심각성을 묻는 문항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포함시켰는데, 4점 리커트형 척도 상에서 2점(상당히 그렇다) 이상으로 답한 자료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선의도 척도. Marlowe-Crowne의 Social Desirability Scale을 단축형으로 구성한 이주일(1988)의 13문항 사회적 선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이주일(1988)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α)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2이었다.

Rye 용서 척도(FS). Rye 등(200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FS는 부정적인 측면의 부재와 긍정적인 측면의 존재를 하위척도로 가지고 2요인구조 15문항으로 이뤄진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연구자가 FS를 번역하여 번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서 총점의 범위는 15~75점이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와 관련된 부정적 요소가 부재하고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여 용서수준이 높은 것이다. 개발자들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α)는 부정적 요소 부재 .86, 긍정적 요소 존재 .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부정적 요소 부재 .86, 긍정적 요소 존재 .83이었다.

한국인 용서 척도(KFS). 한국인의 용서에 대한 질적 연구(오영희, 2006)의 결과를 기초로 개발된 상태용서 척도이다. 개발자가 문항들을 인지적 차원(7문항), 정서적 차원(9문항), 행동적 차원(8문항)으로 구성했지만, 요인분석 결과 1요인 모형으로 수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서 총점의 범위는 24~120점이 된다. 개발자가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 Spielberger의 STAXI 척도를 전점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분노 하위 검사(상태분노,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양식 하위 검사(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이뤄진 자기보고식 검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검사할 당시의 분노감정을 측정하는 상태분노 10문항과 평상시의 분노감정을 측정하는 특성분노 10문항을 이용하였다. 상태분노의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특성분노의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 리커트형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서 총점의 범위는 각각 10-40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수준이 높은 것이다. 개발자들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상태분노 척도 .89, 특성분노 척도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상태분노 척도 .95, 특성분노 척도 .88이었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Spielberger의 STAI 척도 Y형을 한덕웅, 이장호, 전점구(1996)

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상태불안 검사는 검사할 때의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 특성불안 검사는 평상시의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상태불안의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특성불안의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 리커트형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서 총점의 범위는 각각 20-80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이다. 개발자들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상태불안 검사 .92, 특성불안 검사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검사 .91, 특성불안 검사 .90이었다.

우울 척도(CES-D).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검사를 사용하였다. CES-D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이뤄진 우울 척도로서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0점('극히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까지 리커트형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서 총점의 범위는 0-60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이다. 개발자들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연구절차

예비연구에서는 문항선정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용서과정 척도 1차 예비문항을 제작하여 전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또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거나 여러 요인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높거나 본래 의도했던 요인과 다르게 묶여

해석 가능성이 낮은 문항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1차 예비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 내용과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예비문항을 선정한 뒤, SPSS 15.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 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Direct Oblimin 방식의 사각회전을 사용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했다. 신뢰도는 요인별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7.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Rye 용서척도(FS)와 한국인 용서 척도(KFS)의 상관을 분석하여 수렴타당도 분석을 했으며, KFS 점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사이에 용서과정 척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우울 척도(CES-D)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들은 대학교 및 대학원 수업시간이나 사회교육원 수업 시간에 단체로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예비연구 결과

문항선정. 1차 예비문항은 용서과정(6국면)의 각 국면 당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0문항 가운데 6문항은 한국인 용서 척도(오영희, 2008)에서 선택하여 본 연구의 구성개념에 맞게 수정했고, 54문항은 각 요인의 개념에 맞게 직접 만들었다. 1차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학 전공자의 평정을 받았다. 평정자는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3명과 심리학 박사학위자 2명이었다. 5명의 평정자들의 평균 점수가 높은 문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 특히 고투기에 포함된 문항들 가운데 ‘미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4문항이 증오기 문항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용서기 문항들이 상처 받은 사건에서 자유로워진 느낌을 표현하는 것과 가해자와의 대면에서 느끼는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어서 한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두 곳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281명(남성 128명, 여성 153명, 평균연령 29.3세)을 대상으로 1차 예비문항과 사회적 선회도 척도를 작성하도록 한 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8개였고 대체로 모형의 요인별로 문항들이 묶였다. 제1요인에 포함된 증오기 문항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요인부하량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의미상 고투기에 더 가까운 문항이었다. 요인 5로 묶인 용서기 문항 4개는 가해자와의 대면에서 느끼는 자유로운 느낌을 나타내는 문항들이었다. 요인 6에 포함된 고투기 문항 3개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고투기 문항들이었다. 60문항 가운데 사회적 선회도 검사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내가 당한만큼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한 문항뿐이었다.

5명의 평정자들의 평균 점수와 지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용서기에서 가해자와의 대면에서 느끼는 자유로운 느낌을 나타내는 문항 4개를 제거하고 고투기에서 ‘미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항 4개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선회도가 높은 증오기 문항 1개와 요인

8로 묶인 제정의기 문항 2개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라는 증오기 문항을 고투기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수를 동일하게 만들어 채점 및 점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작거나 여러 요인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각 요인마다 4문항씩 제거하여 총 36 문항을 최종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수정된 36문항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Direct Oblimin 방식의 사각회전을 사용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값은 .923으로 높게 나왔고,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chi^2=14663.888$, $df=630$, $p<.001$ 으로 요인구조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좋은 자료임을 알 수 있다.

Scree plot, 고유치, 분산비율을 검토한 결과 6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어떤 요인에도 .30 이하의 낮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이나 본래 의도했던 요인과 다르게 묶여 해석 가능성이 낮은 문항은 없었다.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구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의 문항이 요구된다는 기본 가정(성태제, 2007)을 따르면서도 간단한 척도를 만들기 위해 각 요인마다 요인부하량이 제일 적은 문항들을 1개씩 제거하였다. 이렇게 요인별로 문항수를 5개로 동일하게 맞춰 채점과 요인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용서과정 예비척도 30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Direct Oblimin 방식의 사각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석 가능성이 낮은 문

항 없이 모두 의도했던 요인에 묶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6요인 30문항의 용서과정 척도가 만들어졌다. 각 요인의 scree plot, 고유치, 분산비율은 표 2에 제시하였다. scree plot, 고유치, 분산비율을 검토한 결과 6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문항별 요인부하량, 평균,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별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요인 1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느낌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문항 5개로 이뤄져있다. 이 요인도 본래 명칭 그대로 ‘용서기’로 명명하고 핵심요인을 ‘자유로운 느낌’으로 정리하였다. 요인 2는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을 나타내는 문항 5개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도 본래 명칭 그대로 ‘증오기’로 명명하고 핵심요인을 ‘증오’로 정리하였다. 요인 3은 상처 받은 마음이 안정된 후 상처 받은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보는 것과 관련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도 본래 명칭 그대로 ‘재정의기’라고 명명하고 핵심요인을 ‘인지적 재구성’으로 정리하였다. 요인 4는 용서를 경험한 후 상처 받은 사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도 본

래 명칭 그대로 ‘성숙기’라고 명명하고 핵심요인을 ‘의미부여’로 정리하였다. 요인 5는 상처 받은 마음을 제3자에게 표현한 후 위로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은 본래 명칭 그대로 ‘안정기’라고 명명하고 핵심요인을 ‘표현 후 위로 받음’으로 정리하였다. 요인 6은 대인관계에서 상처 받은 사건에 대한 기억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은 본래 명칭 그대로 ‘고투기’라고 명명하고 핵심요인을 ‘극복 노력의 실패’로 정리하였다.

개발된 용서과정 척도는 증오기, 고투기, 안정기, 재정의기, 용서기, 성숙기로 이뤄진 6요인 30문항 척도이며, 리커트형 4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국면별로 합계 점수를 구하는데 그 범위는 0-15점(중앙값 7.5점)이고, 역채점 문항은 없다. 응답자가 용서과정의 어느 국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원칙은 중앙값을 넘으면서 최고점을 기록한 국면이 해당 국면이라고 정했다. 두 국면 이상이 8점 이상인 경우는 용서과정의 논리적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부정적인 반응인 증오기와 고투기는 긍정적인 반응인 재정의기, 용서기, 성숙기와 역 관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한

표 1. 용서과정 예비척도의 고유치,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고유치	10.09	6.06	4.14	2.14	1.75	1.18
분산비율(%)	28.04	16.84	11.51	5.94	4.86	3.27
누적분산비율(%)	28.04	44.88	56.38	62.32	67.18	70.45

표 2. 용서과정 척도의 고유치,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고유치	8.51	5.01	3.54	1.93	1.56	1.15
분산비율(%)	28.36	16.68	11.79	6.42	5.20	3.83
누적분산비율(%)	28.36	45.04	56.83	63.25	68.45	72.28

표 3. 용서과정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평균	표준 편차
요인 1 용서기 (Cronbach's $\alpha = .88$)				
문항36	그 사건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져 마음이 홀가분하다.	.806	.89	.863
문항17	그 사건이 해결된 것 같아 기쁘다.	.760	.81	.854
문항33	그 사건의 족쇄에서 풀려난 느낌이다.	.755	.91	.863
문항25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장애물이 사라진 것 같다.	.717	.68	.829
문항9	그 사건에서 해방된 느낌이다.	.629	1.00	.843
요인 2 증오기 (Cronbach's $\alpha = .90$)				
문항24	그 사람과 말도 하기 싫다.	.874	1.39	1.074
문항16	그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다.	.871	1.28	1.022
문항20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	.839	1.55	1.062
문항1	그 사람이 미워죽겠다.	.699	1.52	.883
문항29	그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고 싶다.	.642	.97	.987
요인 3 재정의기 (Cronbach's $\alpha = .90$)				
문항3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된다.	.855	.71	.811
문항10	그 사람 입장을 고려해보니 내게 왜 그랬는지 이해된다.	.834	.67	.752
문항23	그 사람에게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795	.74	.781
문항22	그 사람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791	.72	.780
문항35	찬찬히 생각해보니 그 사건의 전후 사정이 이해된다.	.722	.70	.733
요인 4 성숙기 (Cronbach's $\alpha = .86$)				
문항27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많이 성장했다고 느낀다.	-.844	1.27	.825
문항11	그 사건을 통해 좋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799	1.24	.867
문항7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786	1.15	.885
문항30	그 사건을 겪고 난 후에는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693	1.14	.832
문항21	그 사건을 겪고 난 후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된다.	-.561	1.04	.856
요인 5 안정기 (Cronbach's $\alpha = .93$)				
문항8	피로운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니 살 것 같다.	-.902	1.28	.821
문항29	누군가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니 억울함이 풀린다.	-.891	1.24	.852
문항31	상처의 아픔을 다른 사람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876	1.26	.836
문항34	상처 받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873	1.25	.837
문항6	다른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니 답답함이 풀린다.	-.871	1.22	.850
요인 6 고투기 (Cronbach's $\alpha = .90$)				
문항14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785	.59	.832
문항5	그 사건이 마음속에 자꾸 떠올라 힘들다.	-.743	1.03	.864
문항12	그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괴롭다.	-.722	1.25	.884
문항19	그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된다.	-.676	1.04	.899
문항26	괜찮다가도 그 사건이 생각나면 힘이 든다.	-.666	1.13	.880

쪽 점수가 높으면 다른 쪽은 낮아야 한다. 양쪽 모두 점수가 8점 이상이라면 둘 중 한쪽이 가장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8점 이상인 국면 두 개가 전후관계이면서 동점일 경우에는 용서과정의 흐름상 후자 국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개발된 용서과정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요인 1 용서기 .88, 요인 2 증오기 .90, 요인 3 재정의기 .90, 요인 4 성숙기 .86, 요인 5 안정기 .93, 요인 6 고투기 .90로 높게 나타났다(표 3).

본 연구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개발된 용서과정 척도의 6 요인 구조가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발견된 6요인 모형을 사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후, 경쟁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경쟁모형으로 3요인 모형을 채택했는데, 그 이유는 용서과정 척도를 특징에 따라 크게 세 범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과정 척도 상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증오기와 고투기를 요인 1로 묶고,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안정기를 요인 2로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재정의기와 용서기와

성숙기를 요인 3으로 묶어 3요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 크기가 조금만 증가해도 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 기각이 매우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χ^2 검증은 보고는 하나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홍세희, 2000). 이러한 χ^2 통계치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RMSEA 값이 괜찮은 적합도의 기준인 .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CFI값이 Bentler와 Bonet이 제시한 좋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 기준인 .90을 넘고 있으며 TLI 값도 기준인 .90을 넘고 있다. 반면 경쟁모형인 3요인 모형의 경우 TLI, CFI, RMSEA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용서과정 척도의 6요인 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수렴타당도. 표 5에 용서과정 척도의 수렴타당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용서과정 척도 가운데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증오기와 고투기 점수는 FS 총점, 부정적 요소 부재 점수, 긍정적 요소 존재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증오기는 FS 총점과 $r=-.77$, 부정적 요소 부재와 $r=-.71$, 긍정적 요소 존재와 $r=-.57$ 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TLI	CFI	RMSEA
3요인 모형	2765.675	402	.65	.68	.13
6요인 모형	885.676	390	.93	.93	.06

하였다. 고투기는 FS 총점과 $r=-.62$, 부정적 요소 부재와 $r=-.74$, 긍정적 요소 존재와 $r=-.16$ 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안정기는 $p<.01$ 수준에서 FS 총점과 $r=.15$, 긍정적 요소 존재와 $r=.18$ 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정적 요소 부재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재정의기는 FS 총점과 $r=.34$, 긍정적 요소 존재와 $r=.46$ ($p<.001$), 부정적 요소 부재와 $r=.18$ ($p<.01$)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용서기는 FS 총점과 $r=.49$, 부정적 요소 부재와 $r=.40$, 긍정적 요소 존재와 $r=.45$ 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성숙기 점수는 FS 총점과 $r=.31$, 부정적 요소 부재와 $r=.21$, 긍정적 요소 존재와 $r=.35$ 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용서과정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FS와 유사한 특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용서과정 척도는 KFS와의 관계에서도 FS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증오기와 고투기 점수는 KFS 총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증오기는 KFS와 $r=-.78$, 고투기는 $r=-.42$ 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안정기, 재정의기, 용서기, 성숙기 점수는 KFS의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안정기는 KFS와 $r=.11$ ($p<.05$), 재정의기는 $r=.44$, 용서기는

$r=.45$, 성숙기는 $r=.28$ 의 관계를 보였다($p<.001$). 따라서 용서과정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KFS와 유사한 특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 차이 검증. 구성타당도 검증의 일환으로 용서과정 척도 점수가 용서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별하는지 살펴보았다. KFS 점수를 이용하여 상위 30% 집단과 하위 30% 집단으로 나누는 후에 두 집단 간에 용서과정 척도의 각 국면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KFS의 점수 범위는 24-120점인데, 상위 30% 집단 ($n=115$)의 점수 범위는 72-117점이고 하위 30% 집단($n=103$)의 점수 범위는 25-53점이었다.

t -검정 결과 안정기를 제외한 모든 용서과정의 국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검정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KFS 점수 하위 30% 집단이 상위 30% 집단보다 증오기와 고투기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면에, 나머지 국면에서는 하위 30% 집단이 상위 30% 집단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단, 안정기의 경우 상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준거관련타당도. 용서과정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용서과정과 정신건강 지표들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의 지표로

표 5. 용서과정 척도의 수렴타당도

척도	증오기	고투기	안정기	재정의기	용서기	성숙기
FS	-.77**	-.62**	.15**	.34***	.49***	.31***
부정적 요소 부재	-.71***	-.74***	.10	.18*	.40***	.21***
긍정적 요소 존재	-.57***	-.16***	.18**	.46***	.45***	.35***
KFS	-.78***	-.42***	.11*	.44***	.45***	.28***

주. FS: Rye 용서 척도, KFS: 한국인 용서 척도.

* $p<.05$, ** $p<.01$, *** $p<.001$

는 분노, 불안, 우울을 포함시켰다. 대인관계에서 부당한 상처를 받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용서과정의 국면들 중 증오기와 고투기는 분노, 불안, 우울과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용서과정이 진전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줄어들고 중립 혹은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되면 정신건강도 점차 회복될 것이므로, 용서과정의 국면들 중 안정기, 재정의기, 용서기, 성숙기는 분노, 불안, 우울과 부적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표 7에 용서과정 척도와 정신건강 관련 척도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STAXI의 상태분노 점수는 증오기($r=.54$)와 고투기($r=.6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p<.001$), 용서기($r=-.1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p<.05$), 안정기와 재정의기와 성숙기는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다. STAXI의 특성분노 점수는 증오기($r=.17$), 고투기($r=.24$)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 안정기($r=.15$), 재정의기($r=.17$)와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

표 6. 용서 수준 상하 집단에 따른 용서과정의 차이

용서과정	KFS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df	p
증오기	하위 30%	103	10.31	3.15	18.18	216	.000
	상위 30%	115	2.87				
고투기	하위 30%	103	6.46	4.07	6.46	216	.000
	상위 30%	115	3.37	2.94			
안정기	하위 30%	103	6.17	4.30	-1.14	216	.254
	상위 30%	115	6.78	3.55			
재정의기	하위 30%	103	1.82	2.43	-9.11	216	.000
	상위 30%	115	5.37	3.23			
용서기	하위 30%	103	2.71	2.84	-8.12	216	.000
	상위 30%	115	6.35	3.67			
성숙기	하위 30%	103	4.96	3.53	-4.62	216	.000
	상위 30%	115	7.17	3.54			

표 7. 용서과정 척도와 정신건강관련 척도들과의 관계

척도	증오기	고투기	안정기	재정의기	용서기	성숙기
STAXI						
상태분노	.54***	.65***	.02	.01	-.11*	-.05
특성분노	.17**	.24***	.15**	.17**	.07	.05
STAI						
상태불안	.33***	.55***	-.20***	-.05	-.42***	-.28***
특성불안	.23***	.36***	-.17**	.01	-.33***	-.30***
CES-D	.25***	.44***	-.09	.06	-.24***	-.21***

주. STAXI: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STAI: 상태특성 불안 척도, CES-D: 우울 척도.

* $p<.05$, ** $p<.01$, *** $p<.001$

을 보였지만, 용서기와 성숙기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STAI의 상태불안 점수는 $p < .001$ 수준에서 증오기($r = .33$)와 고투기($r = .5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안정기($r = -.20$), 용서기($r = -.42$), 성숙기($r = -.28$)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재정지기 점수는 부적 관계이긴 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STAI의 특성불안 점수는 증오기($r = .23$)와 고투기($r = .36$)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p < .001$), 안정기($r = -.17$, $p < .01$), 용서기($r = -.33$, $p < .001$), 성숙기($r = -.30$, $p < .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재정지기 점수는 부적 상관이긴 하지만 유의한 관계는 아니었다.

CES-D의 우울 점수는 $p < .001$ 수준에서 증오기($r = .25$)와 고투기($r = .44$)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용서기($r = -.24$)와 성숙기($r = -.2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안정기와 재정지기는 우울 점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에서 상처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용서과정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요인구조가 지지 받는 동시에 실용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서과정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여 용서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용서과정 척도 개발을 위해, 용서과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용서과정 척도 예비문항을 선정한 후 내용타당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문항들의 요인

구조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렴타당도, 차이 검증, 준거관련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이경순(2008)의 용서과정 모형에 근거하여 용서과정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6가지 하위 구성개념과 핵심특징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1)증오기(증오), 2)고투기(극복 노력의 실패), 3)안정기(표현 후 위로 얻음), 4)재정의기(인지적 재구성), 5)용서기(자유로운 느낌), 6)성숙기(의미부여). 하위 구성개념에 맞는 1차 예비문항을 구성개념 당 10개씩 총 60문항을 만들었다. 1차 예비문항과 사회적 신뢰도 척도를 가지고 실시한 예비조사의 요인분석 결과와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개념 당 6개씩 총 36문항으로 이뤄진 최종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총 6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다. Scree plot, 고유치, 분산비율, 요인의 해석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6요인이 적합했으며 6요인에 부하된 문항들도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면서 각 요인에 모두 잘 부합되었다. 최대한 간략하면서도 요인분석에 어울리는 척도를 만들기 위해 하위요인 별로 5문항씩 총 30문항을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문항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 6개의 요인은 총 변량의 72%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문항들의 요인구조가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6요인 구조의 적합도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3요인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한 결과 6요인 모형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채택되었다.

용서과정 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용서과정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Rye 용서 척도(FS) 및 한국인 용서 척도(KFS)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용서과정 척도는 FS 및 KFS와 유사한 특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정기 점수는 FS 및 KFS와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안정기 문항들이 상처 받은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내용인데 비해, 다른 두 척도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성타당도 확인의 일환으로 용서과정 척도 점수가 용서 수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구별하는지 살펴보았다. KFS를 이용하여 상위 30% 집단과 하위 30% 집단으로 나눈 후에 두 집단 간에 용서과정 척도의 하위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안정기를 제외한 모든 용서과정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용서과정이 진전될수록 용서 수준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정기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하위 집단과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상위 집단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용서과정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용서과정과 정신건강 지표들인 분노, 불안, 우울 점수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증오기와 고투기 점수는 분노, 불안, 우울 점수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안정기, 재정의기, 용서기, 성숙기 점수는 대체로 불안, 불안, 우울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거나 부적 상관을 보이지

않는 상관계수도 있었다. 이는 증오기와 고투기는 부정적인 정서가 높은 국면으로서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태와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국면들은 정신건강 상태 호전 여부가 혼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용서과정이 정신건강과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을 명쾌하게 판별하기 힘든 국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처를 받은 직후부터 용서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이경순(2008)의 용서과정 모형을 토대로 하여 용서과정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용서과정의 구성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기존의 상태용서 척도들은 용서과정을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척도는 이런 기존 척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용서과정 중 어느 국면에 해당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용서과정의 핵심요소들의 수준을 파악해줄 수 있다.

둘째, 용서과정 척도는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양호한 심리측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설정한 요인구조가 요인분석에 의해 검증되어 명확한 요인구조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기존의 상태용서 척도들은 양호한 심리측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산정한 요인구조가 요인분석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는 기존의 척도들에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서로 역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구분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

을 극복한 용서과정 척도는 용서와 용서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용적인 면에서 문항수가 많지 않아 연구와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편리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용서 척도로는 밝힐 수 없었던 점, 즉 용서과정에서 응답자가 현재 위치한 국면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은 연구와 상담 및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용서과정 척도를 통해서 용서과정의 각 국면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을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심리적 요소들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나 피교육자가 용서에 이르는 여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현재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담자나 교육자는 어떤 요소에 집중해서 개입해야 할지 알게 되고 용서를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상담 및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용서과정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나 피교육자는 용서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대인갈등 해결능력과 용서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만 보았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용서과정은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다양한 타당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수도권 지역의 소수 인원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대학생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성인들을 연구에 포함시켰지만,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전국에서 표집하여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고 전국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용서과정을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익명으로 응답하게 하고 사회적 선회도와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만을 선정했지만, 여전히 응답자들이 자기에 대한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대답할 수 있다. 앞으로 생리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거나 관찰 가능한 행동지표 및 결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관찰 측정도구를 활용하거나 가해자나 제3자의 관찰보고를 활용하는 등의 다차원적인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용서과정 척도는 전체 문항을 대표하는 총점을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각 하위 구성개념의 소계 점수로 어느 국면에 응답자가 위치하는 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총점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로 인해 용서과정 척도 전체와 다른 구성개념의 관계를 연구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증오기와 고투기 점수를 합산한 값을 나머지 국면의 점수를 합산한 값에서 빼면 용서 수준과 유사한 값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용서과정 척도를 더 정교화해서 다양한 점수 체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용서과정 국면을 세밀하게 변별할 수 있는 채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파일들을 분석하여 용서과정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간략하고 선형적인 용서과정 모형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용서과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고 순환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용서과정 척도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긴 하지만,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한 복합적인 용서과정 모형 구축과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인용서 외에 다른 종류의 용서과정 척도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자기용서나 상황용서의 과정을 측정하는 척도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용서과정이란 시간을 두고 변화되는 것이니 만큼 한 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제한된다. 종단적인 연구나 상처 받은 사건에 대한 회고적 종단 연구법을 활용하여 용서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용서과정 척도가 앞으로 용서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용서의 다양한 측면들이 밝혀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용서과정 척도가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어 용서에 대한 지식이 널리 알려져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용서와 관용의 분위기가 넘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2006).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지영, 권석만 (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239-261.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성태제 (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 분석. 서울: 학지사.
- 손운산 (2008).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재은, 현명호 (2010).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와 상황적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699-710.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 오영희 (2008).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3.
- 이경순 (2008). 용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237-252.
- 이아롱, 구계선 (2009). 용서와 성격 특성의 관계: 누가 용서를 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89-105.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검색 척도와 자기의식 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성진, 서경현 (2011). 대학생의 특성용서, 상태용서, 용서 결정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6), 147-169.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7-177.
- Baskin, T. W., & Enright, R. D. (2004). Intervention studies on forgiven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

- 79-90.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6).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6.
- Knutson, J., Enright, R. D., & Garbers, B. (2008). Validating the developmental pathway of forg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 193-199.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2000).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History, conceptual issues, and overview.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16). New York: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Rye, M. S., Loiacono, D. M., Folck, C. D., Olszewski, B. T., Heim, T. A., & Madia, B. P. (2001).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wo forgiveness scales.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Learning·Personality·Social, 20*, 260-277.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 Trainer, M. F. (1981). *Forgiveness: Intrinsic, role-expected, expedient, in the context of divor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Truong, K. T. (1991). *Human forgiveness: A phenomenological study about the process of forgiv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Wade, S. H. (1989).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forg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Walker, D. F., & Gorsuch, R. L. (2004). Dimensions underlying sixteen models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 12-25.
- Worthington, E. L., Jr. (2005). More questions about forgiveness: Research agenda for 2005-2015.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557-573). New York: Routledge.
- Worthington, E. L., Jr. (2006). 용서와 화해 [*Forgiving and reconciling: Bridges to wholeness and hope*]. (윤종석 역). 서울: IVP. (원전은 2003에 출판)

원고접수일: 2012년 1월 31일

게재결정일: 2012년 2월 21일

Development of the Forgiveness Process Scale

Sung-Jin Chung
Sahmyook University

Sung-Sook Cha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Forgiveness Process Scale, which is based on the process of forgiveness experienced by people who were hur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e was an attempt to find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oping methods in each phase of the Forgiveness Process. For this purpose, three interrelated studies have been performed. Study 1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Forgiveness Process Scale based on the Process of Forgiveness Model by Lee, Kyoung-Soon. Fro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ix factors have been derived: 'Hatred,' 'Struggle,' 'Stabilization,' 'Redefinition,' 'Forgiveness' and 'Maturing.' Five items for each of these factors, thirty in total, have been formulated. In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a reasonable fit index for 6 factors of the Forgiveness Process Scale. Convergent validity with the Rye Forgiveness Scale (FS) and the Korean Forgiveness Scale (KFS) was verified showing a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The Forgiveness Process Scale reliably differentiated upper forgiveness level group from lower forgiveness level group. As a result of concurrent criterion-related validity analysis, sub-factors of the Forgiveness Process Scal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Keywords: forgiveness, forgiveness process, development of scales